†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

금주 미사 독서: 이중재 프란치스코, 전은숙 글라라
다음 주 미사 독서: 손유상 요한보스코, 정소라 미카엘라
금주 미사 복사: 조성익 토마스모어
다음 주 미사 복사: 우명희 카타리나
금주 미사 해설: 권민호 바오로
다음 주 미사 해설: 김지원 카린
반 주: 조은영 베다, 황지혜 레지나
회 계: 한진 베드로, 황성필 요한
친교실 정리: 2 구역

+ 지난주 우리의 정성

교무금 : $200
봉헌금 : $196

합계 : $396

봉헌봉사: 김보미 로사

다음 주 봉헌봉사:
윤보연 소화데레사

* 매월 마지막 2 차헌금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미사 전까지.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성가대장: 석우경 안드레아, 고미현 다미아나
친교/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금요 성서모임	미정
성모회 금요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오후 1 시 (장소: 게시판 참고)
교리 모임	미정
골프 모임	매주 일요일 오전 9 시(장소: Tumbledown Trail)

† <구역모임 알림판>

1 구역	매월 둘째주 토요일
2 구역	매월 첫째주 토요일
3 구역	매월 셋째주 토요일
대학원 구역	미정
학부생 구역	미정

† 오늘의 묵상

요한의 세례는 죄를 씻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까? 어느 자매의 신앙 수기에 있는, '평화방송'에서 들었다는 다음의 이야기를 통해 그 이유를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시래기죽을 먹던 시절의 이야깁니다. 어머니는 식사 시간만 되면 상을 차려 놓고 슬그머니 배가 아프다며 나가시고, 우리 여섯 남매는 시래기죽을 서로 차지하려고 얼굴도 들지 않은 채 숟가락을 부산히 움직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늘 배가 아프다며 나가시던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한 그릇이라도 더 먹이시려고 상이 나올 때까지 부엌에서 애꿎은 아궁이만 휘젓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식이 굶어도, 병들어도, 월사금을 못 내고 풀이 죽어도 어머니는 모두가 당신이 죄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셨지요. 따지고 보면 전쟁 탓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탓이고, 식구가 너무 많은 탓이고, 피난살이하던 모든 어머니의 공통된 설움이건만, 유독 어머니는 모든 것이 늘 당신의 죄 탓이라고 하셨지요. 이제 그때의 어머니의 나이가 된 지금 되돌아보면, 어머니는 사랑이 많으셔서 죄가 많은 분이었습니다. 죄가 없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면 죄가 많습니다."
사랑이 많으면 죄가 많은 법이라는 말은 법률적 논리나 윤리적 논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논리 안에서는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죄를 당신 자신의 죄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임 신부
유성모 요셉
(608) 293-1114
사목회장
김태진 하상바오로
(608) 628-7977

(백) 주님 세례 축일

매디슨한인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Madison

홈페이지
club.catholic.or.kr/thekccm
Facebook 그룹
매디슨한인천주교회
E-mail : kccmwi@gmail.com

2013 년 1 월 12 일

<제 1 독서> 이사야서 42,1-4.6-7
<제 2 독서> 사도행전 10,34-38 <또는 티토 2,11-14; 3,4-7>

화답송	◎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 하느님의 아들들아, 주님께 드려라. 그 이름의 영광 주님께 드려라. 거룩한 차림으로 주님께 경배하여라. ◎ ○ 주님의 소리 물 위에 머무네. 주님이 넓은 물 위에 계시네. 주님의 소리는 힘차고, 주님의 소리는 장엄도 하네. ◎ ○ 영광의 하느님 천둥 치시네. 그분의 성전에서 모두 외치네. "영광이여!" 주님이 큰 물 위에 앉아 계시네.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
복 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요한이 말하였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시어,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 알렐루야.
복 음	+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렸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3,15-16.21-22 그때에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온 백성이 세례를 받은 뒤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영성체송]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보았다. 그래서 이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증언하였다.

[오늘의 성가] 시작: 18 봉헌: 210 성체: 159 파견: 479

세례, 회개와 은총의 시간

연중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전례력에 따라 매해 주님 공현 대축일 다음에 맞이하는 주님 세례 축일이 또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매년 습관처럼 흘려보냈던 축일이 '신앙의 해'를 지내고 있는 올해에는 더욱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교황님께서는 '신앙의 해'를 선포하시기에 앞서 먼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즉,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진실한 만남을 통해서 그분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얻고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비장하고도 단호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약성경 시대의 유대인 관습을 살펴보면 세례자 요한이 베푼 세례에 담긴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살필 수 있습니다. 기원전 사해 주변 기슭에 살았던 쿰란 공동체에서는 물로 몸을 닦는 중요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목욕 의식을 통해 하느님께서 사람의 몸을 정화하고 깨끗이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전통적 의식의 연장선에서 세례자 요한은 세례가 하느님께 죄를 용서받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선포하고, 회개를 동반해야 한다는 강력한 조건도 첨부시켰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유대인들은 깊은 통회와 함께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자 세례를 받으러 세례자 요한에게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도 친히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아가셨습니다. 전통적으로 신약성경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시점이 예수님께서 선교활동을 시작하신 출발점이라고 여겼습니다. 즉, 예수님의 시대가 왔음을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알린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루카 복음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중요한 시점에 늘 기도하셨던 모습을 전하던 것과 같이 세례 후에 즉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네 개의 복음서에서는 그리스도교 초기 전승을 이용하여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로 내려오시어 잠정적으로 머무르신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반면에 제 2 독서인 사도행전에서는 하느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언급하면서 초대 교회의 해석을 첨부하십니다. 그러므로 루카 복음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이 예수님의 전 생애에서 아주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도 세례의 순간이 중요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세례의 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례의 순간은 회개를 통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때이며, 하느님께서 함께하시는 은총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례의 순간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또한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깨닫고 있습니까? 세례는 건성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를 만나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점을 깊이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해'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올바른 자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영준 바오로 신부 /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수

† 공지사항

1. 예비자 교리 모집 안내
   - 예비자 교리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신부님 혹은 사목회에 알려주십시요.

소식

내일(1 월 13 일)은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주님 세례 축일'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공적으로 드러낸 사건을 기념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활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날입니다.

그리스도교 일치를 위한 기도주간

1 월 18 일(금)~25 일(금)은 그리스도교 일치를 위한 기도주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될 수 있게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 미사 후 '그리스도교 일치를 위한 기도'를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교 일치를 위한 기도

○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아버지께 기도하신 대로 주님과 아버지께서 하나이시듯 주님을 믿는 모든 이가 하나 되기를 바라셨나이다.

● 저희는 같은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같은 주님을 모시면서도 서로 갈라져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나이다.

○ 이제 저희는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가 되고자 하오니

● 저희를 도와주시어 미움과 불신을 버리고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 아멘.

인간에 대한 하느님 사랑의 복음, 인간 존엄성의 복음, 생명의 복음은 하나이며 분리될 수 없는 복음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인간, 살아 있는 인간은 교회의 일차적이고 근본적인 길입니다.

- 교황 요한 바오로 2 세의 '생명의 복음' 회칙 2 항 -